

##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영향 요인

김미연\*

<sup>1</sup>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부

##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Mi-Yeon Kim<sup>1\*</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소재의 일 대학 간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7명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었다. 연구결과 임상수행능력은 간호학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순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clinical competence and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 from 207 students who running the 2nd grade courses of nursing curricula in college and was performed from August 25 to September 15. In clinical competen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of clinical experience.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clinical compet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 most effective factor on clinical competence wa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followed b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to develop the effective learning program with achievement level of clinical competency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linical competence, Nursing student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질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이론이 이루어지는 학교교육현장은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을 길러주고 다양한 간호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여 근거중심의 임상수행능력을 겸비

한 간호사를 배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1].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는 임상현장에서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실습현장의 특성과 기존의 폐쇄적이고 주입적인 교수학습법으로는 학습자가 실습교과목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교수가 주도하기보다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필요하며[2],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무 현장에 연계하여 간호대상자를 능숙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이 좋은 간호사를 배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

\*Corresponding Author : Mi-Yeon Kim(Suwon Women's Univ.)

Tel: +82-31-290-8210 email: kong-jukim@swc.ac.kr

Received January 10, 2015

Revised ((1st February 3, 2015, 2nd February 12, 2015, 3rd February 17, 2015)

Accepted March 12, 2015

Published March 31, 2015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실무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기술, 태도, 판단을 통해 능숙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3]. 최근 임상상황은 의료 기술의 발전, 재원일수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 질병의 복잡한 변화와 중증 환자의 증가 등 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대상자 특성으로 인해 간호대학생에게 보다 전문성이 높은 임상수행능력을 요구하고 있다[2].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서 환자의 질적 간호 요구와 간호사고 위험으로 인한 현장실습의 제한성으로 70% 이상의 학생들이 활력징후와 관찰 등 비침습적인 기본간호위주의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전 과정동안 신규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실습경험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4].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핵심 간호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상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확인하고 임상실습교육에 반영하며, 실습목표의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및 임상실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5].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을 말하며, 학교에서의 교육과 전문직 사회 즉 직장생활을 통하여 향상된다[6].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자존감과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도 향상되어 간호 전문직의 발전을 가져오며, 전문직 자아개념이 낮은 간호사는 간호의 생산성이 저하된다[7]. 따라서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은 업무의 만족을 주며, 전문직 간호사로 가는 과정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며, 이러한 자아개념은 임상교수나 선배간호사 등의 모델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고되고 있다[8].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으로 비판적 사고가 강조되고 있다[1]. 비판적 사고는 창의적 사고와 올바른 평가와 판단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이다[9]. 현재의 간호교육은 주어진 상황에서 비판 없이 간호 실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적용, 분석, 종합, 추론하며, 의사결정시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춘 간호인재를 길러내도록 요구받고 있다[10]. 따라서 우리 간호교육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중요한 간호교육 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해야 할 핵심간호능력의 하나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필요성 진단, 학습목표 설정, 자원의 선택, 적절한 학습전략 수행 및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학습자 주도의 과정으로 정의된다[11]. 간호대학생의 실습교육은 실무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2].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의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임상실습에서도 임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연결시킨다고 보고하였다[13].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알아보고 관계성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변화되어 가는 간호현장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3년제 여

자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1학기 이상의 임상 실습을 경험한 학생이며,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목적,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207명을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  power 3.1.9 공식에 의하여 검정력 .80,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으로 계산하였을 때 128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자수 207명은 필요한 표집수를 충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 도구는 Arthur[7]가 개발한 전문직 자아개념 도구를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Seo[1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역은 전문직 실무, 만족감, 의사소통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의 자가보고 도구로 이중 7문항은 부정적 문항으로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다.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eo[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다.

### 2.3.2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의 측정도구는 Yoon[15]이 개발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7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하부영역은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의 자가보고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중 2문항은 부정적 문항으로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다.

### 2.3.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측정도구는 Lee[16]가 개발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으로 능력요소는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로 구성되고, 하위요소는 학습욕구진단, 학습목표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과약,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학습전략의 선택, 학습실행의 지속성, 결과에 대

한 노력귀인, 자기성찰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의 자가보고 도구로 ‘매우 드물게’ 1점, ‘매우 자주’ 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 2.3.4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는 Lee[17]가 개발하고 Choi[18]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5개 영역은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 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 등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의 자가보고 도구로 ‘매우 못한다’ 1점, ‘매우 잘한다’ 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1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 이었다.

## 2.4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207명 모두에게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자가 소속된 3년제 여자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연구자 또는 연구보조원이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의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에게 서면동의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 정도 이었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 불충분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하고 최종 19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임상수행능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로 분석하였고,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5세 미만이 171명(90.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종교는 '없음'으로 응답한 학생이 103명(54.2%)이었다. 간호학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107명(56.3%)이 '만족'으로 응답하였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118명(62.1%)이 '불만족'으로 응답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s (N=1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r)	<25	171(90.0)
	≥25	19(10.0)
Religion	Yes	87(45.8)
	No	103(54.2)
Satisfaction with nursing	Satisfaction	107(56.3)
	No satisfaction	83(43.7)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72(37.9)
	No satisfaction	118(62.1)

#### 3.2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본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다음과 같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2.85점이었고, 영역별로는 만족감 2.99점, 융통성 2.89점, 기술 2.88점, 지도력 2.71점, 의사소통 2.63점 순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66점이었고, 영역별로는 지적공정성 4.07점, 객관성 3.95점, 지적열정/호기심 3.67점, 건전한 회의성 3.66점, 자신감 3.56점, 신중성 3.49점, 체계성 3.16점 순이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1점이었고, 영역별로는 학습평가 3.66점, 학습실행 3.63점, 학습계획 3.35점 순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7점이었고, 영역별로는 전문직 발전 3.54점, 대인관계/의사소통 3.53점, 교육/협력관계 3.50점, 간호과정 3.46점, 간호기술 3.36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of the subjects (N=190)

Variables	Mean±SD	Min	Max	Range
Professional self-concept	2.85±0.35	1.85	3.67	1-4
Professional practice	2.84±0.38	1.50	3.88	
Leadership	2.71±0.49	1.50	4.00	
Flexibility	2.89±0.39	1.57	3.86	
Skill	2.88±0.46	1.00	4.00	
Satisfaction	2.99±0.55	1.29	4.00	
Communication	2.63±0.28	2.00	3.5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66±0.42	2.52	4.93	1-5
Intellectual passion/curiosity	3.67±0.69	1.00	5.00	
Discretion	3.49±0.73	2.00	5.00	
Self-confidence	3.56±0.62	2.00	5.00	
Systemicity	3.16±0.78	1.33	5.00	
Intellectual fairness	4.07±0.58	2.50	5.00	
Sound doubt	3.66±0.57	2.25	5.00	
Objectivity	3.95±0.62	2.67	5.00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51±0.49	1.93	4.73	1-5
Learning plan	3.35±0.60	1.55	4.90	
Learning practice	3.63±0.46	2.13	4.80	
Learning evaluation	3.66±0.57	1.90	5.00	
Clinical competency	3.47±0.50	1.67	4.96	1-5
Nursing process	3.46±0.51	2.09	5.00	
Nursing skill	3.36±0.60	1.09	5.00	
Teaching/Coordinating	3.50±0.63	1.00	5.00	
Interpersonal relationship/communication	3.53±0.57	1.33	5.00	
Professional development	3.54±0.54	2.22	4.89	

[Table 3]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the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0)

Variables	Categories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linical competence	
		Mean±SD	t(p)	Mean±SD	t(p)	Mean±SD	t(p)	Mean±SD	t(p)
Age(yr)	<25	2.84±0.32	-0.81	3.63±0.40	-1.83	3.48±0.46	-2.51	3.46±0.49	-0.90
	≥25	2.91±0.42	(.420)	3.88±0.58	(.082)	3.78±0.63	(.013)	3.56±0.57	(.371)
Religion	Yes	2.91±0.31	2.53	3.70±0.46	1.43	3.58±0.50	1.65	3.52±0.46	1.26
	No	2.79±0.34	(.012)	3.62±0.39	(.156)	3.46±0.47	(.100)	3.43±0.52	(.209)
Satisfaction with nursing	Satisfaction	3.00±0.27	8.75	3.74±0.43	3.29	3.65±0.47	4.98	3.58±0.48	3.63
	Non satisfaction	2.64±0.29	(.000)	3.55±0.40	(.001)	3.32±0.43	(.000)	3.32±0.48	(.00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04±0.24	7.44	3.76±0.42	2.53	3.65±0.46	3.11	3.60±0.44	3.09
	Non satisfaction	2.73±0.32	(.000)	3.60±0.42	(.012)	3.43±0.49	(.002)	3.38±0.50	(.002)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종교, 간호학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높고( $t=2.53, p=.012$ ), 간호학전공에 '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이 '불만족'으로 응답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t=8.75, p=.000$ ), 임상실습에 '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이 '불만족'으로 응답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t=7.44, p=.000$ ). 그러나 연령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학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학전공에 '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이 '불만족'으로 응답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t=3.29, p=.001$ ), 임상실습에 '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이 '불만족'으로 응답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t=2.53, p=.012$ ). 그러나 연령과 종교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연령, 간호학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5세 이상의 연령이 25세 미만보다 높고( $t=-2.51, p=.013$ ), 간호학전공에 '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이 '불만족'으로 응답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t=4.98, p=.000$ ), 임상실습에 '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이 '불만족'으로 응답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t=3.11, p=.002$ ). 그러나 종교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임상수행능력은 간호학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학전공에 '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이 '불만족'으로 응답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t=3.63, p=.000$ ), 임상실습에 '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이 '불만족'으로 응답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t=3.09, p=.002$ ). 그러나 연령, 종교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3.4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전문직 자아개념( $r=.570, p=.000$ ), 비판적 사고성향( $r=.586, p=.000$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r=.682, p=.000$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비판적 사고성향( $r=.545, p=.000$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r=.605, p=.000$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r=.732, p=.000$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 3.5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

[Table 4] Correlation of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N=190)

Variables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545 (p=.000)	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605 (p=.000)	.732 (p=.000)	1	
Clinical competency	.570 (p=.000)	.586 (p=.000)	.682 (p=.000)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f clinical competence (N=190)

Variables	B	SE	$\beta$	t	p	Adjusted R <sup>2</sup>	F(p)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435	.078	.441	5.67	.000	.447	57.610(.000)
Professional self-concept	.237	.115	.357	3.10	.00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77	.091	.219	2.39	.018		

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간호학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44 - .68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45 - 2.27으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F=57.610, p=.000),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44.7%였다. 이 중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2.85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8]의 연구결과(2.71점)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가 나왔으나 Shin[1]의 연구결과(2.91점) 보다는 낮게 나왔다. 하위요인별 점

수의 순위는 만족감 2.99점, 전문적 실무 2.88점, 의사소통 2.63점의 순으로 나타나 의사소통, 전문적 실무, 만족감의 순으로 나타난 Shin[1]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Lee[8]의 연구대상자는 간호사로서 11개국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비교한 Arthur[7]의 연구에서 한국이 가장 낮았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며 우리나라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정신교육이나 훈련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이 경력이 쌓여감에 따라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간호지도자들 스스로가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하며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들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실무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함을 나타낸 결과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1]의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대상자보다 학년이 높고 실습경험이 많았는데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높아짐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실무 현장에서의 제도 개선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도 다 만족감의 순위가 높았는데 이는 실습환경의 차이가 있었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실습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문적 실무 영역은 본 연구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도 낮은 순위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내실습 강화 및 실습현장에서의 교육적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66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Chaug[19]의 3.57점, Yang[20]의 3.42점 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지적공정성 4.0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객관성 3.95점, 지적열정/호기심 3.67점, 건전한 회의성 3.66점, 자신감 3.56점, 신중성 3.49점, 체계성 3.1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20]의 연구에서는 지적공정성 3.63점, 객관성 3.59점, 지적열정/호기심 3.44점, 자신감 3.44점, 건전한 회의성 3.38점, 신중성 3.24점, 체계성 3.17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Chaug[19]의 연구에서는 객관성 3.95점, 지적공정성 3.79점, 건전한 회의성 3.65점, 자신감 3.60점, 지적열정/호기심 3.53점, 신중성 3.29점, 체계성 3.19점의 순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적공정성과 객관성이 높다는 것과 신중성과 체계성이 낮다는 것은 같은 결과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의 간호교육이 근거중심을 강조하여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객관성은 강화되었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여겨지므로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법의 적용과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1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1]의 연구결과(3.38점)와 Park[22]의 연구결과(3.39점)보다 높았고, Kwon[2]의 연구결과(3.51점)와 같았으며, Yang[23]의 연구결과(3.59점) 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영역은 학습평가 3.66점, 학습실행 3.63점, 학습계획 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1]의 연구에서 학습평가 3.47점, 학습실행 3.41점, 학습계획 3.27점, Park[22]의 연구에서 학습실행 3.53점, 학습평가 3.51점, 학습계획 3.23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학습계획이 가장 낮았던 결과는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계획이 가장 낮았던 결과는 개인 스스로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선택하는 학습계획 능력이 낮음을 나타낸다[16]. Park [24]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대학생활이 익숙해지고 중·고등학교 시절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의사결정에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아진다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지만 대학교육과정에서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7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1]의 연구결과(3.45점)보다 높았고, Park[22]의 연구결과(3.49점)보다는 낮게 나왔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연구대상자의 표집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위 영역을 보면 전문직 발전 3.54점, 대인관계/의사소통 3.53점, 교육/협력관계 3.50점, 간호과정 3.46점, 간호기술 3.36점 순으로 나타나 전문직 발전 영역이 가장 높았다. 이는 Shin[1], Park[22]의 연구결과에서 전문직 발전 영역이 가장 높고 간호과정, 간호기술의 영역이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임상환경의 변화로 환자권리와 질적인 의뢰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이 관찰위주와 단순 영역의 기술적인 분야에 치중되고 있어 임상수행의 경험을 저하시켜 오는 결과라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술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내 시뮬레이션의 활성화, 통합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종교, 간호학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가 있고, 간호학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에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가 '불만족'으로 응답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학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학전공 만족도에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 임상실습 만족도에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연령, 종교, 간호학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높고, 종교가 있으며, 간호학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에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다는 Park[2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긍정적 사고성향을 가진 학생이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음을 나타내므로 간호대학생들이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링 제도, 교내 동아리 활동,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고,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으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on[25], Jang[2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Yang[5]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구대상자와 도구의 차이가 있고, Yang[5]의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순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할극을 활용한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된다. Kim[2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역할극을 활용한 실습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역할극은 학생들에게 수기술 증진과 더불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각 역할에 대한 감정이입으로 이론과 실무를 연계하는데 효과적인 교수전략이라 하였다. 또한 신규 간호사 교육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프리젠퍼십 교육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활용하는 것이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된다. Hickey[28], Hong[29]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프리젠퍼십 실습교육이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줄이며 임상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평가하였으며, Lee[30]의 연구에서도 프리젠퍼십에 의해 실습한 학생이 임상수행능력과 임상

실습 만족도가 높았고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학과 실습기관의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산학간담회를 통해 학생에 대한 간호사의 교육자적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교육현장에서는 역할극 및 시뮬레이션 활용교육, 통합실습 등을 통하여 임상실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내실습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임상수행능력은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순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임상실습을 1학기만 이수한 1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이므로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가하여야 하겠다.

## References

- [1] K. A. Shin, B. H.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3), pp. 413-422,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1.046>
- [2] M. S. Kwo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pp. 387-394,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387>
- [3] C. Barrett,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2), pp. 364-371, 1998.  
 DOI: <http://dx.doi.org/10.1046/j.1365-2648.1998.00511.x>
- [4] M. H. Cho, I. S. Kwon,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3(2), pp. 143-154, 2007.
- [5] J. J. Yang,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2), pp. 159-165, 2009.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09.15.2.159>
- [6] J. E. K. Geiger, J. S. Davit,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 *Nursing Management*, 19(12), pp. 50-58, 1988.
- [7] D. Arthur,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Newcastle, 1990.
- [8] S. H.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 pp. 10-20, 2008.
- [9] H. J. Lee, M. J. Kim, S. K. Ch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lifelong core competenc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3), pp. 1535-1549, 2012.
- [10] I. S. Kwon, G. E. Lee, G. D. Kim, Y. H. Kim, K. M. Park, H. S. Park, S. K. Sohn, W. S. Lee, K. S. Jang, B. Y. Chung,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36(6), pp. 950-958, 2006.
- [11] S. B. Slusarski, "Enhancing self-direction in the adult learner: Instructional techniques for teachers and trainers",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96(64), pp. 71-79, 1994.  
 DOI: <http://dx.doi.org/10.1002/ace.36719946411>
- [12] C. R. Kessenich, G. H. Guyatt, A. DiCenso, "Teaching nursing students evidence-based nursing", *Nurse Educator*, 22(6), pp. 25-29, 1997.  
 DOI: <http://dx.doi.org/10.1097/00006223-199711000-00014>
- [13] C. Riley-Doucet, "A self-directed learning tool for nurses who precept student nurses", *Journal for Nurses Staff Development*, 24(2), pp. 7-14, 2008.  
 DOI: <http://dx.doi.org/10.1097/01.NND.0000300874.28610.a7>
- [14] W. H. Seo,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 self 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07.
- [15]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4.
- [16] S. J. Lee, Y. K. Ch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 [17] W. H. Lee, C. J. Kim, J. S. Yoo, H. K. Hur, K. S. Kim, S. M. Lim,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Yeonsei Nursing*, 13, pp. 17-29, 1990.
- [18] M.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5.
- [19] S. K. Chau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1), pp. 71-78, 2011.
- [20] H. J. Yang,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2), pp. 6387-6394,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2.6387>
- [21] J. W. Park, K. S. Bang, "Learning style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Perspective in Nursing Science*, 7(1), pp. 36-42, 2010.
- [22] Y. S. Park, Y. H. Kwon,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3), pp. 341-350,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341>
- [23] J. J. Yang, M. Y. Park,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competence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0(2), pp. 271-277, 2004.
- [24] J. Y.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creativity, personal relationship in regards to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wondo, 2013.
- [25] Y. H. Kwon, O. G. Kwag, "Validation of a path model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0), pp. 4572-4581,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10.4572>
- [26] H. J. Jang, Y. K. Kwag,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9), pp.

4380-4387,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9.4380>

- [27] Y. H. Kim, y. M. Lee, "Relationship of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problem solving process of nursing students after practice evaluation of fundamentals of nursing course using role pla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 pp. 147-155,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1.147>
- [28] M. T. Hickey, "Baccalaureate nursing graduates preceptions of their clinical instructional experiences and preparation for practic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1(1), pp. 35-41, 2010.  
DOI: <http://dx.doi.org/10.1016/j.profnurs.2009.03.001>
- [29] S. J. Hong, E. H. Kim, "Effects of preceptorship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0), pp. 6204-6214,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0.6204>
- [30] J. D. Lee, C. S. Lee, "The effects of preceptorship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2(3), pp. 434-443, 2006.

김 미 연(Mi-Yeon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중환자